

---

# '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20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4. 5. 9.(목)10:00 ~ 11: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2명)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시 의 원(1명) :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 민간위원(6명) :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송정아 서울회계법인 이사, 이윤주 골든오크 세무 법인 이사,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이남주 법률사무소 율도 변호사
- ※ 간사 : 재정담당관
- ※ 배석 : 공공자산담당관,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 팀장
-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심 의 결 과
1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서울대공원 관리부	원 안 가 결
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공공자산담당관	
3	'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기초실장입니다. 사전에 간사께서 오늘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요.

## 심의안건 1.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서울대공원 관리부장께서 먼저 요약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현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년이 딱 서울대공원 개원 40주년입니다. 1984년 5월에 개원했구요. 주요시설에는 직영시설과 사용수익허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전체적인 조감도인데요, 금년 5월에 원더파크가 새롭게 오픈했구요. 또 플레이월드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오늘 관심사항인 리프트가 현재 사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현재 과천에 있고요. 연간 우리 서울대공원은 420만명의 방문객이 있는데, 주변에 과천 국립과학관과 경마장, 또 미술관 등이 있어서 연간 약 1,000만명의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인데, 우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리프트가 1991년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대비 시설 교체를 권고받은 적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고정순환식 삭도로 돼 있어서 속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날씨,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리프트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이용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설을 다시 전면 보수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시면 처음에 2014년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을 수립했고요. 2021년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사업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 민간제안서가 접수됐고, 작년에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를 했고, 금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적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 주요 내용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서울대공원 곤돌라 주식회사고요. 현재는 개방형인데 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으로 해서 10인승짜리 62개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80억 되고요. BTO 방식이고, 관리운영권은 약 30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선도입니다. 현재 리프트하고 노선이 똑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B/C 분석이 1.02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고요. 재무성 분석입니다. PI 지수라고 하는데, 1.015로 수익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성 분석을 했는데요, 법제도적 부합성이라든가 사업의 준비 정도,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인데 전액 민간 재원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실질적인 재원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건데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경제성 분석이 아까하고 비슷하게 1.01이 나왔고요. AHP 분석이라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0.584로 나와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고요. 적격성 판단을 합니다. VfM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성적으로는 적격성 있게 나오는데, 정량적으로는 적격성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행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발전기금을 4억 4,700만원 이상 내면 민간 적격성을 확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사업인데요, 제3자 제안공고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비슷한데요, 곤돌라를 설치해서 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을 설치하고요. 곤돌라 정류장 3개소 설치하고, 추정 사업비는 680억 정도, BTO 방식,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걸로 해서 주요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 제안은 서류로 같음하겠습니다. 또 평가 방식도 이걸로 참고하시고요.

이건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검토를 받았는

데요, 총 69건의 제안 의견을 내서 저희가 66건의 의견을 반영했고, 1건은 미반영이고 2건은 수정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마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심의회가 끝나면 금년 6월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8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저희가 2028년 9월에 곤돌라를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을 저희 기초실의 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재정과의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재정담당관

- 재정담당관 검토 의견은 별도로 배포해드린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공고(안) 심의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공고(안)에 대해 전문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중 66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수정반영 및 미반영하였습니다.

수정반영 및 미반영된 3건을 재정담당관에서 검토한 결과,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았거나 비교적 경미하여 사업 추진에 무리 없는 내용이며, 특별한 쟁점 사항은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이게 계획 수립은 2014년도부터 됐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10년 걸렸네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제3차 제안공고(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서울시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안공고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 해서,
- ○○○ 위원
  - 2건하고 69건 중에서 그러면,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지금 검토 의견이 여기 48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48건에 대한 수정 됐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수정 반영한 내용 2건을 해주셨는데요.
- ○○○ 위원
  - 44건 중에서 2건만 수정 저기를 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 ○○○ 위원
  - 나머지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검토를 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수정을 했습니다.
- ○○○ 위원
  - 2건 수정한 거 아니에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아니요, 46건을 수정했습니다. 이미 수정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건 중에 지금 수정 반영된 2건인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건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작사 설치 실적이 평가 점수에 반영하라고 돼 있는데, 반영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점수가 배점이 너무 높습니다. 20점이라는 차이가 실적만 가지고 20점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 점수를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낮췄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 ○○○ 위원

- 점수를 낮추는 걸 수정해서,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 ○○○ 위원

- 별문제가 없나요? 배점을 낮춘다면.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그러니까 실적 점수인데요, 전체 1,000점 중에.

○ ○○○ 위원

- 실적 점수를 낮춘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데.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작사 설치 실적이 어떤 건 4건이고 어떤 건 8건인데, 8건은 16점 받고 4건은 8점을 받거든요. 그럼 8점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8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점을 제 생각에는 10점 정도로 낮춰서 그 간격을 줄여서, 보통은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PQ에서 평가하거든요. PQ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곤돌라 제작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춰진 업체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실적을 조금 낮춰서 현재 시장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 위원

- 지금 곤돌라 제작사가 대공원이 할 때 국내에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돼 있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곤돌라 제작사가 없고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인가 두 군데에서 있습니다.

○ ○○○ 위원

-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습니까?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 두 나라가 주 나라고요.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독일의 포마하고,

○ 소관부서 [서울대공원]

- 도펠마이어 2개 회사가 있는데 안정적이고 검증된 회사는 그 2개 회사.

○ ○○○ 위원

- 안정되고 검증됐다는 부분을 2개 회사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그런 검증을 받은 저기가 있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 2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portion이 저희가 알기로는 80~9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 그건 객관적인 평가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가 큰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안정적이고,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저희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 ○○○ 위원

- 어떤 검증한 자료 같은 건 없잖아요. 국내에는 없습니까?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펠마이어하고 포마사, 도펠마이어는 오스트리아 회사로 알고 있고요. 포마사는 제가 알기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둘 중 제가 헛갈리는데요, 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회사들 간에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곤돌라 제작하는 업체가 합병이 돼서 거대기업으로 전세계 시장을 거의 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두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네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중국 것도 거의 두 회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남미의 곤돌라는 2개 사가 다 장악합니다. 한 군데 또 하고 있는 게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자체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거의 서너 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처음엔 하려다가 시장성이 별로 안 좋아서 거기서는 스스로 제작하거나 그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곤돌라 하는 게 50개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2개 회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는 포마사가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도펠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대단해요. 10인승 캐빈 62개에 680억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곤돌라 캐빈이 62개인데, 68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캐빈뿐만 아니라 운영설비로 하는 게 200억 정도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건물 공사하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운영비 해서 합쳐서 680억 정도 됩니다.

○ ○○○ 위원

- 지금 현재 리프트가 30년 넘었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30년이 넘습니다.

○ ○○○ 위원

- 이용객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1년에 70~80만 정도 됩니다.

○ ○○○ 위원

- 100만이 안 되네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100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현재 리프트의 내구연한이 있나요?

○ 소관부서 [서울대공원]

- 법적으로 어디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리프트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 ○○○ 위원

- 지금 곤돌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나요? 지금 설치하는 곤돌라의 내구연한이, 곤돌라를 설치한다 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런 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 위원

- 그런 것도 좀 문제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내구연한이라는 게 기계 설비에 대한, 만약 예를 들어서 와이어나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바꾸면 됩니다. 캐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철도가 도시철도의 내구연한이라기보다 차량 그런 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 위원

-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지금 현재 곤돌라는 내구연한이 있느냐.’ 그러면 다만, 이게 우천 시에 운행이라든지 1년에 70~80만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대비해서. 그렇죠?  
지금 곤돌라를 설치했을 때 이용 예상 인원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지금 경제성은 1.0 이상 나와서 좋다고 보는데.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예상 인원은 75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1년에 75만 하겠다고 해서 곤돌라 사업을 글썄...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위원님 그러면 그게 하루에 2,000명이 넘거든요. 많은 거죠.

○ ○○○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울대공원 관람객이 하루에 얼마 정도 돼요? 1일 얼마 됩니까?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3만 명 정도 되나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하루예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유료 관광객 말고 내방객들 전부 합쳐서.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 위원

- 산책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지역주민들이 산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료 내방, '내가 꼭 여기를 와서 서울대공원을 한번 보겠다.' 관광객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파악 안 해가지고 왔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1만 명 정도 됩니다.

○ ○○○ 위원

- 저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원래 공투 의견은 '설비공사 실적 2단계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관부서 의견은 수정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배점이 지금 20점인데 이렇게 20점 하는 걸로 수정 반영하신 건데, 서울공투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도 다소 높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그럼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10건 이상 4건 미만으로 나뉘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경우에 실적 건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만약에 국내외 설치 실적을 낸다면 아마 독일이나 포마사 100여 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저는 원래 1단계 PQ에서 그 정도 실적 10건 이상 있으면 통과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올까봐 거기에 대해 열어놓으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업체나 다른 업체가 있으면 그 정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럼 특정 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아니요, 지정은 돼 있지 않고 최초 제안자가.

○ ○○○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송정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2개 업체를 놓고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지정업체를 같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사를 지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 ○○○ 위원

-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성적 분석에서는 적격성이 있다고 했지만 정량적에서는 적격성이 없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4억 4,000만원만 내면 적격성이 있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말인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VfM 분석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실행 대안하고 민간 실행 대안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분석으로는 수익이 잘 나와서 서울시가 하는 게 낫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게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해도 최소한 4억 4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민간이 그때부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보시면 부외 재정 지원 평가가 돼 있어서 4억 4,000만원 이상 더 많이 제시하는 업체가 80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게 연간 4억 4,000인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연간입니다.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게 미니멈입니다. 그 이상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이게 탐승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도 가능하다. 다만, 그쪽에서 번 돈의 일부를 서울시에 4억 4,000을 내면 민자가 해도 좋다.' 이런 결론인 거죠?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민자도 해도 좋다 그건데, 그렇다면 일 2,000명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왕복 인가요? 편도인가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요금은 11,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3,000만원쯤 되겠네요. 위원님, 다른 분들한테도 질의 기회를 드리실까요.

○ ○○○ 위원

- 네, 그러시죠.

○ ○○○ 위원

- 민자사업 하는데 이렇게 발전기금을 조건으로 달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안 하면 아까 같이 적격성이 안 나옵니다. 4억 4이라는 건 미니엄입니다. 저희들은 맥시멈 7~8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저희들이 민자 할 수 있는 것도 시에 재정 부담을 안 주려고 사실 민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기초실장님 계시지만 돈을 준다면 우리가 민자사업 안 해도 됩니다.

○ ○○○ 위원

- 그런데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계속 민자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같은 건데, 행정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지방채로 하기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그리고 이 운영을 공공이 하는 것보단 민간이 하는 게 책임감 있게 할 수

도 있습니다.

○ ○○○ 위원

- 요금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시민 부담과 그런 걸 고려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11,000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지금 요금이 11,000원인가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지금은 9,000원 정도 되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왕복 9,000원?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편도.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하여간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14년에 안전검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0년이 넘어서 계속 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지금 해당 운영업체도 이 시설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이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곤돌라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것 빨리 없애고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 ○○○ 위원

- 저는 이용객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몇 번 저는 아이들 때문에 갔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위험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위상하고도 너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안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곤돌라가 새로 오면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아이들 엄마로서는 그거 보

면 사실은 뒷걸음질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이면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제 느낌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사업성은 지금보다 조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민자로 하시는 것도 운영 면에서 저는 위탁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맞습니다. 사실 큰 사고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이게 고정순환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험성도 있고요. 또 개방형이라 오픈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 ○○○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부외 재정 지원 연 4억 아니면 7~8억까지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거 이상의 이익이 나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곤돌라들하고 비교하면 적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서울 곤돌라 사업 자체는 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는 건데, 큰 차이가 있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사실 저도 서울대공원에 온 지 1년 약간 넘었는데요, 서울대공원은 입찰방식이 최고가 입찰을 해서 사실 체납이 돼서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오픈한 원더파크 건물도 20년 동안 폐허된 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해서. 사실 이 사업도 우리가 회의를 작년엔 10번 했는데 제가 계속 싸웠어요. 여기서 계속 ‘수익이 난다. 부외 재정을 계속 높여야 된다. 맥시멈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사실 부외 재정 지원도 좋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는 그거보다는 돈을 많이 걷어서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쪽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 업체 중에 체납한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부외 재정 지원을 많이 낮춘 겁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사업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업을 많이 봤거든요. 잘되는 데는 남해에 있는 여수나 이런 데는 잘됩니다. 거기는 굉장

히 관광객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최근에 춘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의 관광 수요하고 많이 연동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리프트가 40만 정도 되고, 저희가 수요를 재추정해 보니까 70만 정도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리프트 수요를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몇 년간을 쭉 유심히 봤는데 리프트 수요가 희한한 게 코로나가 됐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공원의 특수성이 코로나 때 더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리프트 수요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 타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가 해야지. 서울시가 더 많이 벌어들여야지.'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이득이 나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경쟁이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최소한 4억 4,000은 받아 내야 사업자가 그것도 내고 더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4억 4,000을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요. 그 이상은 받아 내야 진행을 할 거고, 협상에서도 사업자하고 물론 debating이 있겠지만 거기서 그 이상을 확보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공투센터에서 검토해 주신 연간 4억 4,000을 미니멈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1억만 내라고 바꿀 재량이 있는 건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재량은 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VfM이 안 나와서 사업의 당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재정으로 하는 게 낫지, 그 돈으로 하려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분석 과정은 제가 모르지만 여수나 목포의 곤돌라는 높이 올라가서 그 자체가 풍경을 관광하는 용이고요. 여기는 사실 이게 이동 수단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을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풍경을 즐기는 게 남해의 곤돌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남해는 높이 올라가서 주로 이용객이 노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여기의 관광객들은 주로 유희시설 플러스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까지 구간이 꽤 길니다. 1.7km 되는데 그 구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걷기가 힘든 어린 아이들이 주로 많이 탑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코끼리열차도 있잖아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코끼리열차는 문까지만 가고요. 여기는 맹수사까지 가기 때문에 맹수사까지 타서 그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유희시설 플러스 교통의 2가지 기능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건 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위원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손해 봤을 경우도 부외 재정 지원을 내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분석하는 데서는. 그런데 손해 보는 해도 있잖아요. 진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손해를 봤거든요. 손해 봐도 4억 4,000을 꼭 내야 돼요. 그런데 이 4억 4,000은 미니멈이고요. 사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맥시멈을 낼 거예요, 아마. 7~8억 정도 저희가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손해 봐도 7~8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건데.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요금은 조례로 정하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요금은 조례로 안 정합니다. 여기는 사용수익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협상으로 정하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요금은 제안을 받아서. 기준만 우리가 잡고 제안을 받아서.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조례로는 안 하고요.

○ ○○○ 위원

- 저는 680억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2년 기준으로 해서 물가

변동비도 2% 포함하셨다고 하지만 최근에 건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이게 요금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사업성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현실화시키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제안 당시 가격 기준으로 맞춘 거고요. 그게 평가하면 아마 제안 기준에서 다 깎아서 내려올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 제안 기준 위반 시 감점 기준을 미반영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원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감점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평가를 다시 넣으라고 얘기하셔서 넣었는데, 이 기준이 원래는 2004년 BTL 사업하면서 만들었던 기준이거든요. 그때는 사업 제안서의 평가보다 조그만 업체들이 서로 관계된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까봐 이거 가지고 평가를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감점 기준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제한기준 이게 뭐냐 하면 백상용지 200g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프린트를 해보니까 지질 차이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백상용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150g인지 200g인지 하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쇄업체가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그걸로 하는 게 효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표지제한기준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감점을 준다는 게 원래 사업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게 낫지, 그 종이 가지고 일일이 글자 크기, 디자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실제 내용상 별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감점 기준이 굉장히 큼니다. 2점 5점 합치면 20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종이 질 가지고 20점을 마이너스해버리면 그거 때문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내용 가지고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자 이 부분이군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최초 제안자가 만약에 다시 할 경우에는 우대 점수율이 1%밖에 되지 않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1%면 1,000점에 10점이거든요. 10점이면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거고요. 그런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 10%까지 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 제시를 한 겁니다.
- ○○○ 위원
  - 그럼 예상하고 있는 제안자가 있으시죠? 최초 제안자 말고도. 몇 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아직은 정확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질의하거나 하는 데는 없거든요. 기존 업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 ○○○ 위원
  - 기존 업체도 관심을 갖는다?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네. 그 자리에 바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이 있죠.
- ○○○ 위원
  - 늘어나지 않나요? 1.7km 정도 되나요? 아니면 더 늘어나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50m 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바로 거기에 설치합니다.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하여튼 사업성 검토할 때 소위 인구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스키장도 사양산업이 돼버린 게 아이들이 줄어서, 동물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리고 규격 사양 같은데 리프트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까?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에어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캐빈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무게가 더 들어가서 하중에 문제가 있다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런데 참고로 남산 곤돌라 사업하면서 에어컨이 없었는데 제안사에서 에어컨을 달자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그건 평가에서 캐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달아서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건 평가에서 점수를 좋게 주는 방식으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런데 그러면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나 봐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좀 올라가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몇억이 아니라 수십억, 백억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그 정도는 아닙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여쭙볼게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무서워서 못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나요? 민자인데?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조건부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하기 전에 한 번 더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28년까지는 지금 걸 운영해야 되는 거네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렇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착공하면 스톱인가요?

○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 그렇죠. 스톱해야 할 수밖에 없죠.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하고 민간투자심사 2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민간투자법이기에 때문에 민간투자심의를 하는 건 맞습니다. 민투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의 지방재정법 절차에 얼마 전부터 지방에 있는 민자사업도 심의를 받으라는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레고랜드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민투심은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 절차에 중복 소지가 있는데도 아무튼 레고랜드 사안을 얘기 하시면서 '이것도 중투심을 받아야 된다.' 그거 때문에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절차가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시행령이 바뀌었나요?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3팀장

-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시행령 다시 원래대로 좀 하라고 하세요. 이중이잖아요.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달라져버리면 어떡해요?

○ 재정기획관

- 제도개선을 지난번에 차관님께 건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서울대공원 곤돌라 안전과 관련해서 혹시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2.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두 번째 안건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 안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 공공자산담당관 ○○○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사전 협상 등 민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중 현금 납부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2024년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의 현금 납부를 시작으로 다른 민간개발사업에서도 현금 납부를 협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재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 재원을 사용하여 향후 서울시 전역에 지역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민간 개발사업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서울시 내에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 기간 및 소관부서 간의 협의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보다는 재원 조성과 활용이 유연하고 갑작스런 수요에 대비가 가능한 기금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겠습니다.

○ ○○○ 위원

- 기금이라는 게 사실 집행부에서 편하게 예산 집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런 거 아닙니다.

○ ○○○ 위원

-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이 기금을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건가요?

○ 공공자산담당관

- 네, 5년.

○ ○○○ 위원

- 일반 예산편성에서 하면 시간도 걸리고 적재적소에 못 쓰니까 기금으로 해서 더 연장을 해달라는데, 혹시 이 시설이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광역 간에 그런 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한 건가요?

○ 공공자산담당관

- 주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 위원

- 5년 안에 이 기금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공공자산담당관

- 아직 수요조사에서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계속해서 재원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요조사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아직 들어온 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 공공자산담당관

- 네.

○ ○○○ 위원

- 그림 재원 확보 계획 같은 것도 아직 없네요.

○ 공공자산담당관

- 거의 건건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건 1건이고요. 그리고 예정인 게 2건 있고요. 계속 사업별로 들어옵니다.

○ ○○○ 위원

-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상 액수죠, 2건하고 1건하고. 1건은 거의 확정적인 건데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 공공자산담당관

- 현재 북부역세권에서 들어오는 건 2,160억 정도 예상합니다.

○ ○○○ 위원

- 그다음에 2개.

○ 공공자산담당관

- 그다음에 광운대랑 르메르디앙 호텔은 협약을 아직 체결 못 했는데요, 거기에서 1,700억 정도 예상합니다.

○ ○○○ 위원

- 광운대역에 공터를 전부 다 물류센터로 만든다는 건가요? 그 부지인가요?

○ 소관부서 [재정기획관]

- 네, 맞습니다. 그 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중에 현금이 107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광운대는 시설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 광운에서 107억이고요. 르메르디앙 호텔 그쪽에서 1,600억 정도.

○ ○○○ 위원

- 강남에 호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소관부서 [재정기획관]

- 네, 신논현역 위쪽에 있는 호텔입니다.



○ ○○○ 위원

- 거기서는 얼마 예상합니까?

○ 공공자산담당관

- 1,600억 정도요.

○ ○○○ 위원

- 광운대는 107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체가 1,700억 정도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추가 질문있으신가요?

○ ○○○ 위원

-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하고, 사실 중앙정부는 못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토부에서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뚝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2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5개 미확정 협의 예정에서 기금 조성액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서울시가 예상하고 제시고, 이걸 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작성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도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례가 조금 남았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역발전에 쓰이는 실적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본 기금의 운용과 그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고백하자면 중앙정부가 돈을 기금 갖다가 쓰지만 오히려 서울시나 지방정부들이 훨씬 더 fudge 하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돈 갖다 쓰고 그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더 심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추가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립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러면 혹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럼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

○ 공공자산담당관

- 네,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심의안건 3. '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이어서 세 번째 안건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재정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재정담당관

-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대상 사업별 실소요액 및 집행 전망에 따라 발행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채의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행 개요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24년 당초 계획 및 발행 현황입니다. '24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은 18개 사업에 총 1조 6,908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매출 공채인 도시철도공채 6,666억원,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한 모집공채 총 5,780억원, 마지막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공공자금 총 4,468억원입니다.

'24년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572억원 발행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자동차 신규 등록 등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572억원이며, 현재 모집공채 및 공공자금은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입니다.

지방채 대상 사업 추진실적 및 연간 집행 전망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채 발행 축소액 한도 내에서 일부 증액 발행을 통해서 어려운 세수 여건 하에서 예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변경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 2개 사업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총 40억을 감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40억을 증액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발행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표로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조성 사업은 100억에서 60억원으로 40억이 감해졌으며,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200억원에서 24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년 말 채무 전망은 11조 4,057억원으로 '23년 대비 368억원 감축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재계위가 끝나면 5월 24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6월 말에 시의회 의결, 그리고 하반기 중에 변경 계획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조성 사업의 재원 변경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일부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평거나 하천점용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공정 순연에 따른 연내 실소요액이 감소하여 저희가 세출 예산 40억을 감추경 및 그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 40억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재원 변경 사유를 보시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24년에 소요 예산은 증감이 없고, 지방채 공공자금은 40억을 증액하고, 시비는 40억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 또한 총사업비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세 번째 안전에 대해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서부간선도로에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연내 실소요액이 감소하였다는데, 이 건 왜 감소했나요?

○ 재정담당관

- 이 사업의 일부 구간에서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랑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구간이 있는데요, 실제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도 지연이 되면서 여기가 집행할 예정했던 금액이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공사 일정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거고, 그걸 양재대로에다가 40억을 증액시켰는데 양재대로는 어떤 쪽에 40억을 증액시켰다는.

○ 재정담당관

- 지방채는 40억을 증액시키지만 시비는 다시 40억을 감액시키기 때문에 이 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 ○○○ 위원

- 총사업비에서 시비 감액 부분을 지방채로 해서 거기에 넣는다?
-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시비 40억을 감액시키고, 지방채 40억 증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어떤 공사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럼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보다 지방채가 늘어나는 상황인 게 전체 사업구조에서도 그런가요? 총 전체사업비에서 지방채 조달 규모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할 때는 그만큼이 주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재정기획관
  - 금년도 공정은 동일한데 그 재원을 시비로 충당하느냐, 지방채로 충당하느냐.
- ○○○ 위원
  -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업 계획 짤 때 전체 사업에서 시비 이만큼 쓰고 그다음에 채무 조달해서 쓰는 게 얼마 이렇게 보통 정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데 총사업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가 줄고 지방채가 늘어나는 게 2024년에 변동하지만 총누적액은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지.
- 재정기획관
  -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게 시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 ○○○ 위원
  - 서부간선도로 게 남으니까 공사 기간에 변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쓴다 이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궁금하신 게 내후년에는 다시 지방채를 줄이고 시비를 더 늘리는 거냐.

○ ○○○ 위원

- 지방채가 줄고 내년이나 후년에 늘어나냐 이게 궁금해서.

○ 재정담당관

- 어차피 저희가 지방채 세입이나 편성은 내년에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 ○○○ 위원

- 그런데 공공자금은 뭔가요?

○ 재정담당관

- 이걸 정부의 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 ○○○ 위원

- 뭐 이걸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이게 인프라기 때문에 시가 해주게 되어 있나요?

○ 재정기획관

- 시도이기 때문에.

○ ○○○ 위원

- 사실 강남에 집중투자 되는 게 저는 조금... 더 잘 살고 더 좋아지고, 물론 서울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설을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걸 뭐라고 할 근거는 없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상생발전기금도 규모가 어쨌든 서부간선도로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 재정기획관

- 사실 이게 사업 베이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정 전체 규모를 부족한 부분을 투자사업의 어느 걸로 지방채를 발행할지 재정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거라 사업 하나하나를 보시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내부에서 정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 위원

- 물론 그렇죠. 잘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양재대로 구조개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 ○○○ 위원

- 참고로 저는 서초구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서부간선도로에 투자하는 건 좋고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자기금도 사실 양재대로보다는 서부간선도로에 조금 더 많이 가고,

○ ○○○ 위원

- 균형 발전을 위해서.

○ ○○○ 위원

- 그럼요. 거기에 대한 재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토균형 전체를 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 위원

- 지방채는 요즘 추세가 어떠세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 재정담당관

- 올해 '24년인데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약간 덜 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국세 세수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세도 사실 국세랑 거의 연동이 되어 있고요. 부가세 가져오는 거고, 소득세 가져오는 거고, 다음에 거래 관련해서 취득세 하나가 뿔뿔한 건데 부동산 거래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금 ○○○ 위원님이 걱정하신 건 이자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 지방채 상황이 어떤 거냐를 아마 여쭙보신 것 같은데, 그 부담은 생각보다 올해 1/4분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추계해 놓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그거보다 충격은 덜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채가 올해 줄지는 잘 모르지 않을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취득세가 1/4분기까지는 당초 저희 예상보다 제법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취득세 비중이 제일 크죠.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더 질의응답 없으시면 세 번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이상으로 올해 두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1시 08분, 폐회】